

INSS

Global Focus

Weekly

주간 현안 및 쟁점 (2020.12.21~12.27)

미 국	트럼프 대통령, 2021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레저용 차량 폭발사고 발생
중 국	왕이 외교부장, 이란 핵문제 해결 위한 네 가지 방안 제안 러시아와 양국 공동이익 수호, 국제 안정과 협력 수호 의견 교환
일 본	스가 내각 지지율, 39%로 급락 아베 前총리, '벚꽃 모임' 스캔들 관련 국회에서 설명
러시아	재야운동가 나발니, FSB 독살 시도 녹취 증거 공개 라중 군용기의 아태 지역 내 제2차 합동 순찰 비행 중 KADIZ 진입
아세안	필리핀 대통령, 백신 미공급 시 VFA 종료하겠다고 미국 압박 태국, 미얀마 이주 노동자 발 코로나 확산으로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혐오 정서 확산
유 럽	영국-EU, '미래관계협상' 극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긴장 해소 포스트 메르켈 차기 독일 총리 후보 여전히 불투명

미 국

트럼프 대통령, 2021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제한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서한을 의회에 발송 (White House, 12.23)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방수권법이 러시아와 중국에 선물을 안겨준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를 지지한 남부연합군 장성의 이름을 딴 군 기지나 시설의 명칭을 1년 내에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국방수권법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
-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하원이 다시 투표를 실시해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미 하원은 전체 435석 중 찬성 335 대 반대 78으로, 상원은 100석 중 찬성 84 대 반대 13으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어 상하원이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레저용 차량 폭발사고 발생

-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현지시간) 오전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 시내 변화가에서 레저용 차량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 (CNN, 12.25)
-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차되어 있는 레저용 차량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위험물 취급반을 호출해 출동하던 중 차량이 폭발해 수십 채의 주변 건물이 파손되고 통신망 등 기간 시설 파손
- 경찰은 이번 사고를 자살폭탄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은 폭발 현장에서 확인된 차량과 유사한 레저용 차량을 소유한 60대 용의자를 파악해 가택 수색에 착수
- ▶ 공화당 소속 빌 리 주지사는 이번 폭발이 송전 건물 근처에서 발생해 주 전역의 AT&T 통신 시스템과 켄터키주 및 앨라배마주 북부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내슈빌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비상사태의 선포를 요청

중 국

왕이 외교부장, 이란 핵문제 해결 위한 네 가지 방안 제안

- 왕이 외교부장, 이란 핵문제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문제 해결 위한 네 가지 방안 제안 (外交部, 12.21)
 -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포괄적 합의 탈퇴와 압박이 이란 핵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이 기존 태도를 바꿔 핵 합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
 - 왕이 외교부장은 해결방안으로 △포괄적 합의 견지 △미국의 복귀 △약속 이행 관련 쟁점 해결 △지역의 안보 문제 처리 등 네 가지 방안 제안
 - ▶ 미국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왕이 외교부장의 제안에는 이란 핵문제와 화웨이, 명완저우 사태로 연결된 이 문제 해결이 중미관계 변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반영

러시아와 양국 공동이익 수호, 국제 안정과 협력 수호 의견 교환

- 왕이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양국 관계 평가 및 미래 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 (外交部, 12.18)
 -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 중러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쌍방이 포괄적 전략협력 가치를 귀중하게 만들었다고 평가
 - 왕이 외교부장은 내년 중국과 러시아의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0주년을 계기로 다음 단계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잘 계획하자고 제안
 - ▶ 양국 외교장관이 우호 협력에 공감대를 확보함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對러, 對중 정책이 사안별 대립과 협력으로 변화할 경우 중러 협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일본

스가 내각 지지율, 39%로 급락

- 아사히 신문 전화 여론조사(12.19-20)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이 11월 56%에서 39%로 급락 (朝日新聞, 12.21)
 -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으며, 스가 총리의 관광지원책인 ‘Go To Travel’ 중단에 대해서도 ‘중지 결정이 늦었다’는 응답이 79%로 조사
 - 자민당 지지층의 내각 지지율은 67%로, 11월의 83%에서 크게 하락했으며 무당파층의 지지율도 11월 39%에서 22%로 급락한 반면 자민당 지지율은 38%로 11월에 비해 1% 하락하면서 평행선 유지
 - ▶ 코로나19 대응 미숙과 관광지원책 중단 등과 관련 스가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아베 前총리의 ‘벚꽃 모임’ 스캔들과도 무관한 수 없는 스가 총리로서의 취임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

아베 前 총리, ‘벚꽃 모임’ 스캔들 관련 국회에서 설명

- 아베 前 총리, 25일 오후 국회에서 ‘벚꽃 모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설명 (朝日新聞, 12.26)
 - 국회 내 설명에서 아베 前 총리는 자신의 총리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진 ‘벚꽃 모임’ 관련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명
 - 다만, ‘지역구 제1비서와 회계 책임자에게 일임해 왔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이 ‘벚꽃 모임’ 스캔들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정
 - ▶ 지난 8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했던 아베 前총리는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번 벚꽃 모임 스캔들로 향후 자민당 내외의 정치적 영향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러시아

재야운동가 나발니, FSB 독살 시도 녹취 증거 공개

- 재야운동가 나발니가 서방 탐사보도 매체들과 함께 FSB 화학전 요원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독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 (CNN, 12.21)
 - 나발니는 FSB 화학전 요원 콘스탄틴 쿠드랴프체프가 톰스크에서 자신의 속옷 사타구니 부분에 신경작용제를 묻혀 독살하려했다고 폭로
 -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나발니를 피해망상/과대망상 환자로 규정하며, 이번 발표를 자국 정보기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계획적 도발이라고 평가절하
- ▶ EU가 나발니 사건 관련 러시아인 6명과 단체 1곳에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도 익명의 독일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해당 사건을 매개로 한 러시아-EU 관계의 악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러-중 군용기의 아태 지역 내 제2차 합동 순찰 비행 중 KADIZ 진입

-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이 자국 항공우주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장거리 항공기를 활용한 아태 지역 내 제2차 합동 순찰 비행 결과를 발표 (리아노보스티, 12.22)
 - 이번 합동 순찰 비행은 2019년 7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으며, 러시아의 Tu-95 전략폭격기 2대와 중국의 Hung-6k 전략폭격기 4대 등이 참여
 -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비행이 양국 군대 간 협력 수준 제고, 글로벌 전략적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
- ▶ 러-중 군용기가 이번 작전 중 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사당국이 유감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으며, 미중/미러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유사 작전/훈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 마련 요망

아 세 안

필리핀 대통령, 백신 미공급 시 VFA 종료하겠다고 미국 압박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이 최소 2천만 도스의 백신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방문군 협정(VFA)'을 종료시키겠다고 미국 압박 (CNN Philippines, 12.26)
- 필리핀 상원 여당과 야당 대표가 각각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예방효과가 50%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백신 구매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12.25)
- 필리핀 식약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심사 시작 (12.27)
- ▶ 2020년 2월 미국과의 VFA 종료를 통보했던 필리핀이 종료 유예기간 중 2차례 종료 절차를 연기하여 동 협정은 2021년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인 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필리핀이 기대했던 중국 백신의 예방률이 타 백신보다 떨어지고 영국산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자 VFA까지 동원하면서 미국에 백신 공급을 압박

태국, 미얀마 이주 노동자 발 코로나 확산으로 미얀마 노동자에 대한 혐오 정서 확산

- 미얀마 이주 노동자가 대규모로 일하고 있는 태국 사뭇사콘주(州) 수산물 시장에서 일일 최대 규모인 5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020.12.19.) 이후, 수산물 구매를 위해 태국 각지에서 온 도·소매업자 통한 반미얀마 정서가 전국 확산 (The Bangkok Post, 12.27)
- 12월 19일 최초 발생 이후 12월 27일 현재까지 사뭇사콘주(州) 수산물 시장 발 코로나19 감염은 태국 내 38개 주(州)에서 발생하였고, 관련 확진자는 1,300여 명으로 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141명의 약 20%
- 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가 태국산 수산식품 수입을 중단(12.23)하는 등 무역피해까지 발생하자 태국에서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미얀마 불법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들의 태국 입국에 편의를 제공한 부패 관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 ▶ 의료시스템이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미얀마는 백신 구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도 중국이 무료제공 의사를 밝힌 백신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아직 공급받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문제까지 겹친 상황에 직면

유럽

영국-EU, '미래관계협상' 극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긴장 해소

- 영국-EU, 무역협정 포함 '미래관계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양측은 '브렉시트'로 발생할 정치·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Downing Street/EU, 12.24)
 - 양측은 △새로운 사회·경제 협력관계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투자, 경쟁, 국가보조금, 조세투명성, 교통, 에너지, 어업, 데이터 보호 등) △사법협력을 통한 시민 안전 △ 분쟁 시 해결 방안 구축 등 3가지 핵심 사안에서 협력 모색에 합의
 - 협상 막판까지 걸림돌이었던 어업문제는 영국이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기존의 '3년 내 80% 삭감'안에서 '5년 6개월 내 25% 삭감'안으로 양보하면서 타결
 - ▶ 그러나 금융의 핵심 쟁점 사안과 외교·안보 협력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됨으로써 고위정치(high politics) 부문에서 영국-EU 간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

포스트 메르켈 차기 독일 총리 후보 여전히 불투명

-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독일인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12.14-16)에서 20여 명의 정치인들이 독일의 차기 지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림 (Der Spiegel, 12.23)
 - 1.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71%) 2. 앙겔라 메르켈 총리(61%) 3. 마르쿠스 죄어 기사당 대표 겸 바이에른주 총리, 옌스 슈판 기민당 소속 독일 보건장관(60%) 5. 올라프 솔츠 재무장관(50%) 6.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51%) 7.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45%)
 - 슈피겔 여론조사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내년 9월 26일 독일 연방 하원선거를 앞두고 차기 독일 총리 후보와 민심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지표로 평가
 - ▶ 이번 조사에서 정작 차기 독일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기민당 3인(프리드리히 메르츠 전 원내대표, 노르베르트 뢰트겐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아르민 라셰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총리)은 10위권 밖으로 나타나 포스트 메르켈 구도는 여전히 불투명

주요 일지

(2020.12.21~12.27)

| 미국 |

- 12.21 : 바이든 당선인 부부, 델라웨어주 뉴어크 병원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 12.21 : 폼페이오 장관, 인권 탄압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 발표
- 12.23 : 트럼프 대통령,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로켓포 공격 이란 소행으로 규정
- 12.24 : CNN, '트럼프 대통령,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는 데 펜스 부통령의 비협조 불만' 보도
- 12.25 : VOA,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 복원' 보도
- 12.26 :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서명 거부로 인해 미국인 1,000만명이 실업보험 급여 상실" 경고

| 중국 |

- 12.21 : 홍콩정부 식품위생국, 22일 새벽부터 영국 항공기의 입항 제한
- 12.22 : 시진핑 주석, 라오스와 △전략적 소통 심화 △핵심이익 상호 지지 △전방위적 협력 강화 등 강조
- 12.23 :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 발생 (외부 유입 11건, 본토 6건)
- 12.24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알리바바그룹 지주회사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 12.25 : 중공중앙 정치국, 24-25일 양일간 민주생활회(民主生活會) 개최
- 12.26 :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 2021년 3월 5일 베이징 개최 결정
- 12.27 : 선전(深圳)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신규 무증상 확진자 1명 발생 발표

| 일본 |

- 12.21 : 요시카와 前 농림수산성장관, 부정 금품 수수 혐의 의혹을 받던 중 의원직 사직
- 12.22 : 방위성, 2021년도 미군주둔비 부담액을 2,017억 엔으로 상정
- 12.22 : 일본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3천 명 초과
- 12.24 : 도쿄지검 특수부, '벚꽃 모임' 관련 아베 前 총리는 불기소처분, 비서진 등은 약식기소 방침 결정
- 12.25 : 일본 정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견 대응조치로 전세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출입국완화조치를 28일부터 일시정지한다고 발표

| 러시아 |

- 12.21 : 주미 러시아 대사관, 미 상무부의 러시아군 연계 기업 제재 결정에 강력 반발
- 12.22 :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 공장 인수 완료
- 12.23 : 외무부, 콜롬비아의 자국 외교관 2명에 대한 추방 조치에 대칭적 맞대응 발표
- 12.24 : 쇼이구 국방장관, 최북단 알렉산드라랜드 군사기지의 활주로 연장(3.5km) 발표
- 12.25 : 타스통신, 러시아군의 Su-57을 활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발사 시험 계획 보도
- 12.26 : 보건부, 60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접종 최종 승인

| 아세안 |

- 12.21 : 싱가포르, 아시아 최초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도착
- 12.22 : 베트남 응웬쑤언푹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 12.22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장관 6명 교체
- 12.22 :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도 비준 문서를 교환하고 전체 국경의 84% 확정
- 12.22 : 태국 왕 '배우자', 신원미상자에 의해 과거 나체 사진 1천여 장 해외 유출
- 12.22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분양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비서 전화 통화
- 12.24 : 미얀마·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미얀마·한국 경제협력 산업단지' 착공

| 유럽 |

- 12.21 : 유럽의약품청(EMA), EU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 공식 승인
- 12.21 : 프랑스,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48시간 동안 영국에서 도버항과 유폴터널을 통한 입국을 전면 금지
- 12.23 : 영국과 프랑스, 코로나19 음성판정서 제출 조건으로 영국발 승객과 화물 기사에 양국 국경 개방에 합의 (우선 내년 1월 6일까지 한정)
- 12.26 : EU, 삼엄한 경비 속에 27개 회원국에 코로나19 백신 배분
- 12.27 : EU 27개 회원국, 코로나19 백신(화이자-바이오엔테크) 접종 개시